



함께
꿈꾸는 마을

가을 햇빛이 드는 자리에 꽃이 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한 구절에 아이들 입가에도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잔디밭 위에서 아이들은 공룡과 마주치고 도깨비와 씨름하며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만납니다. 동화 같은 정원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함께 꿈꾸는 집'을 만드는 SH의 약속입니다.

남산타운아파트 하늘정원

- 02 이웃집 그 사람들 방과 후 행복수업 Good afternoon!
- 06 행복을 짓다, 이야기를 짓다 대가족이 함께 한 여름휴가
- 07 함께 사는 기쁨, 같이 만드는 행복 커피 한 잔에 담긴 꿈, 희망을 연습하다

SH사랑방 2015년 가을호 | 발행일 2015년 10월 19일 발행인 변창흠 발행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주거복지팀
문의 SH공사 콜센터 1600-3456 기획·디자인·제작 (주)이팝 사진 리빙룸 스튜디오

2015 가을호

SH 사랑방



방과 후 행복수업

Good afternoon!

상암월드컵8단지 '원어민 영어 아카데미'

상암월드컵8단지 아이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를 기다린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은 아이들이 영어와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이다. 반짝거리는 눈으로 "저요!"하며 대답하는 아이들. 행복수업이 펼쳐지는 현장을 들여다본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영어 수업

"How are you today? (오늘 기분이 어때요?)"

"I am exciting! (신나요!)"

9월 8일 오후 2시, 상암월드컵8단지 작은 도서관에 영어 인사말 소리가 가득하다. 이날은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 '원어민 영어 아카데미' 수업이 있는 날. '원어민 영어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SH공사가 국제한국 입양인 봉사회와 협력해 지원하는 외국어 교육 사업이다. 수업을 맡은 로렌 맥캘러(Lauren McCallough) 선생님이 미소 띠고 얼굴로 인사하자 아이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오늘의 기분을 영어로 답했다.

올 3월부터 수업을 진행한 덕분에 제법 능숙하게 답하는 아이들. 로렌 선생님은 준비해 온 그림 카드를 꺼내 영어 단어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틀린 문장을 말해도 엄지를 척 들고는 "거의 비슷해,

잘했어"라며 아이가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격려한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워하면 이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데, '원어민 영어 아카데미'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진행된다.

영어와 친구하며 'Happy'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슬금슬금 장난을 시작할 때쯤, 로렌 선생님은 단지 내 놀이터로 장소를 옮긴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다소 무리이기에 놀이로 수업을 이어나가는 것.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덕분인지 영어 수업은 당사자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편이다. 선생님 옆에서 적극적으로 질문에 답하는 오시은 학생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서 재미있어요"라며 매주 영어 수업을 기다린다고 한다.

'원어민 영어 아카데미'는 참여하는 아이들보다 부모들에게 더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상암월드컵8단지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자녀의 어머니들이 수업 도우미 활동을 자처한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쉬워 틈틈이 자리 배정을 다시 하며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날 일일 도우미로 나선 유정이 어머니는 "영어 수업의 기회가 생겨 기쁘다"며 흡족한 마음을 드러냈다.

"영어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았는데 한시름 덜었어요. 제 아이도 수업에 참여하면서 영어로 노래를 흥얼거려요. 바람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2~3년 동안 이어졌으면 하는 거죠."

영어 교육은 부모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숙제이다. 꾸준히 익혀야 하는 언어 영역이기에 교육 방법과 비용이 걱정일 수밖에 없을 터. '영어 원어민 아카데미'는 부모들의 고민과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아이들이 영어와 친구가 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SH공사에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원어민 영어 아카데미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원어민 영어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중부지역 주거복지단 산하 3개 센터(마포·은평·성동 주거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11개 반으로 프로그램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SH 비전스쿨

임대주택 입주민 자녀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이다. 강사진은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SH공사 직원들로 현재 강남, 강서, 관악, 노원 권역에 개설되어 있으며 수학과 영어 위주로 강습이 진행된다.

은평뉴타운 멘토&멘티

은평주거복지센터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 방학 동안 원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끔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재능 기부로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한국사, 수학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작은도서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입주민의 단짝,
‘오래오래 살고 싶은 집’을 만든다

살고 싶은 아파트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웃끼리 소통하며 직접 만들어가는 것일 터. 강미애, 남영미 마을코디네이터는 단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입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몰두한다. 입주민과 뼈격덜 때도 있지만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오래 머물고 싶은 ‘진짜 집’을 짓고 있다.

입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마을코디네이터
마을코디네이터 강미애, 남영미 씨는 올해 3월부터 SH공사와 손을 잡고 활동을 시작했다. 강미애 씨는 신정도시마을을, 남영미 씨는 천왕여성안심주택을 담당한 지 반년이 지난 셈.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이모, 언니, 선생님으로 불린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인 이들은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마을코디네이터는 입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요.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죠. 연계할 수 있는 외부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마을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설명하는 남영미 씨의 말에 강미애 씨는 “신정도시마을 6층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도 외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프로그램에 따라 재능 기부

를 할 땐 선생님이 되기도 하지요. 결국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입주민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라고 덧붙여 말했다.

아파트를 자주 방문하다 보니 어느덧 입주민의 호칭도 언니, 이모로 격이 없어진 것. 강미애 마을코디네이터는 친근해진 만큼 입주민에게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근에 이탈리아 요리를 배웠어요. 조리법이 쉬워서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입주민과 이탈리아 요리 수업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를 만듭니다

여태껏 이룬 것보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두 사람. 강미애 씨는 “입주민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며 신정도시마을 주택 공동체가 단합이 잘되는 편이라고 자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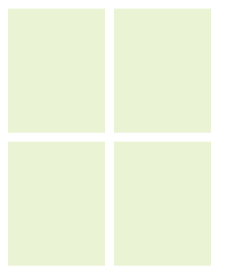
“어린이 도서관을 꾸밀 때 빈 공간에 의자가 전부였는데 입주민이 발 벗고 나서서 이만큼 완성됐어요. 책도 기부하고 직접 요리를 해서 간식을 주기도 하셨죠. 입주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이라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앞으로는 입주민의 재능을 발굴해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남영미 씨는 천왕여성안심주택의 공동체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마을코디네이터란?

SH공사는 2015년부터 신규 입주가 예정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배정했다. 현장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정, 입주민에게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다양한 외부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입주민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돕는다.



“4월에 입주민이 직접 준비했던 집들이 행사 이후로 서서히 공동체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요즘 입주민과 즐거운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강미애, 남영미 마을코디네이터. 입주민과 찰떡 공감을 자랑하며, 이사철이 돌아와도 ‘오래 머물고 싶은 집’을 완성하기를 기대한다.

동대문주거복지센터 ●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시



'2015 신나는 예술여행' 개최



9월 3일 면목임대 아파트에서 '2015 신나는 예술여행'이 열렸다. 이 행사는 평소 공연

관람 기회가 많지 않은 입주민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가 단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이다. 이날은 전통 악기 연주가 결합된 '新 흥도야 우지마라'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이끌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입주민 120여명은 흥에 겨운 듯 "얼썩~"하며 장단을 맞추며 공연을 만끽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입주민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노원주거복지센터 ● 취약계층 건강 개선 활동



서울대치과병원과 취약계층 구강보건 증진사업 MOU 체결



SH공사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지난 9월 15일 오후 2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증진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원에서 진행된 이번 MOU를 계기로 임대주택 입주민이 구강검진과 무료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SH공사 변창흠 사장과 북부주거복지단장, 주거복지팀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 서울대치과병원과 의료 취약 계층을 발굴함과 동시에 사업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성북주거복지센터 ● 입주민 일자리창출사업 & 주거복지 서비스 홍보



찾아가는 고용·복지 서비스 실시



9월 1일 길음뉴타운 해맑은 어린이공원에서 찾아가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설명회가 열렸다. 성북주거복지센터와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 진행한 행사에서는 임대주택 입주 문의와 취업을 원하는 주민의 취업상담이 이루어졌다. 임대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길음뉴타운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로 즐거운 행사가 되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취업을 위한 교육을 소개하며 일시적인 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성동주거복지센터 ● 어르신 문화예술 향유 활동



연극놀이 수업 실시



성동주거복지센터는 성동권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연극놀이 수업을 실시

한다. 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을 흥미롭고 유쾌하게 만들어줄 연극놀이 수업 청춘연극 프로젝트 '꽃보다 할배·할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주2회 래미안하이리버 임대주택 단지 내 문고에서 진행된다. 특히 만리동 예술인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전문 연출가와 손을 잡고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은평주거복지센터 ● 취약계층 학생 교육



은평뉴타운 '멘토&멘티' 운영



은평주거복지센터는 지난 7월 은평뉴타운 작은도서관협의회와 은평뉴타운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재능 기부 협약을 맺고 멘토&멘티 서비스를 실시했다. 여름 방학 동안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한국어, 영어 등 학습에 꼭 필요한 수업과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보드 게임 등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됐다. 이 시간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ONE-STOP 맞춤형 복지종합 상담소 지원 행사



9월 11일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성북구청 및 성북보건소 등 8개 기관과 함께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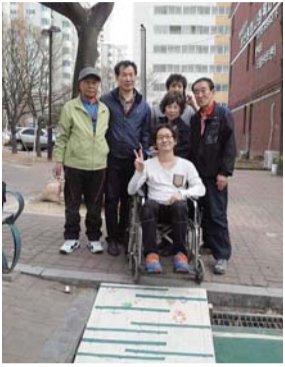
STOP 맞춤형 복지종합 상담소 지원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입주 안내(입주조건, 입주방법)와 주거환경 개선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민 홍보용 책자 및 임대주택 입주민 미담 사례집을 배부해 지역주민에게 SH공사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행사는 치매 진단과 치아건강 상담, 취업상담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포주거복지센터 ● 봉사동아리 활동



마을봉사모임의 재능기부



성산단지 알콜중독치료 모임과 마포주거복지센터 직원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작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알콜중독치료 모임인 '여의주' 일부 회원과 센터 직원이 참여해 조직한 마을봉사공동체 '사랑회'가, 성산단지 주민공동시설인 농구장 출입로에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램프)를 제작·기증한 것이다. 그동안 몸이 불편했던 입주민은 "농구장 출입이 자유로워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랑회 회원들도 "재능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게 되어 보람차다"며 사랑회 모임을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서주거복지센터 ● 건물 개·보수 활동



가양8단지 통행로 캐노피 설치 공사



가양8단지 공공임대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측 통행로에 보완공사가 시행됐다. 가양역 측 통행로는 이용자가 많은 편이고 아파트 입주민 구성원 대다수가 노약자와 장애인이라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동절기와 우천 시 결빙, 미끄럼 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었다. 이에 출입로에 캐노피(차양)를 설치해 입주민의 민원사항을 말끔히 해결하고 주거환경시설을 개선했다.

양천주거복지센터 ● 주거환경 개선 활동



'깨끗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지난 9월 12일 신월6동에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양천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손을 잡고 다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또한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해 마을 청소와 어린이공원 내 평상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양천주거복지센터 임직원 및 가족 50여 명이 동참해 잡초와 쓰레기를 제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탰다.

관악주거복지센터 ● 주민 여가 생활 지원



시흥벽산임대아파트 건강노래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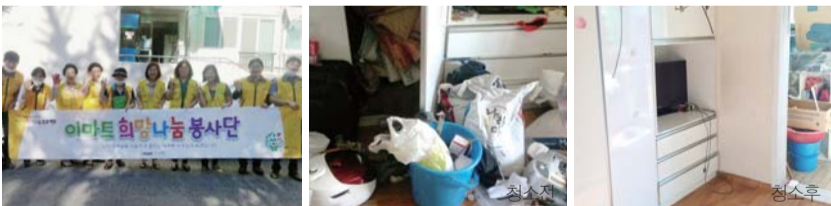


시흥벽산임대아파트에서는 7월 20일부터 건강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시흥벽산임대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에서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2까지 진행된다. 참여하는 입주민은 금천지역자활센터 노래교실 강사의 지도 아래 올바른 호흡과 발성 지도, 연기, 표현력, 팀워크 지도, 음악 감상 등을 배운다. 건강노래교실을 통해 참가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의 활력을 높이며 입주민 간의 친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주거복지센터 ● 주거환경 개선 활동



1사 1단지 업무 협약에 따른 취약계층 세대 지원



9월 8일 강남주거복지센터는 이마트 수서점 봉사단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세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마트 수서점 주부자원봉사단 5명과 수서6단지 희망돌보미 2명, SH공사 자원봉사자 5명은 세대 안의 불필요한 가구와 물품을 정리하는 등 6시간 동안 대청소를 실시하며 후원물품도 전달했다. 해당 입주민은 장기간 청소를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소 후 쾌적해진 환경에 만족해했다. 강남주거복지센터는 이번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세대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추가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송파주거복지센터 ● 건물 개·보수 활동



거여6단지 옥상 보수공사



거여6단지 임대아파트의 옥상 지붕 마감재 보수공사가 시행됐다.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 이틀간 점검이 진행된 결과, 각동 옥상 지붕 마감재로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 성글이 오래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임이 확인됐다. 마감재가 탈락되면서 우천 시 빗물이 스며들 경우 아래층 세대의 누수 피해가 우려돼 아스팔트 성글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보수공사를 통해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대가족이 함께 한 여름휴가

독자 리포터
장미숙(송파파인타운)

열여덟 명이나 되는 우리 가족이 여름휴가를 떠나게 된 건 친정엄마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모두 큰언니 집에서 모이기로 하고 우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언니네로 향했다.

언니는 바다와 조금 떨어진 시골마을에 살고 있지만 녹동 항구에서 작은 어선 한 척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민박집은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주위 경치가 수려했다.

식구들이 밥을 먹고 난 뒤 가족대항 게임이 펼쳐졌다. 첫 게임은 보물 찾기였다. 행사 담당을 자칭한 둘째 언니는 보물을 찾은 사람에게 줄 상품까지 마련해뒀다. 그런데 상품을 본 우리는 폭소를 터트리며 말했다. 상품은 모두 그곳에서 써야 할 것들로 준비됐기 때문이다. 역시 언니다운 발상이었다. 열 살된 조카는 상품으로 고무장갑을 받고는 입이 오리처럼 튀어 나오기도 했다.

막상 보물 찾기가 시작되자 집집마다 경쟁이 붙어 서로 보물을 찾느라고 야단이었다. 엄마도 아버지도 형부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보물을 찾는 동안 동심으로 돌아갔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소중하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보물을 다 찾고 시상식까지 거하게 마치고 난 뒤 모두 해변으로 내려갔다. 가족 대항 축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까지 선수로 뛰다 보니 축구가 아닌 공놀이가 되어 버렸지만 응원과 함성으로 해변이 떠들썩해졌다.

나는 열심히 가족사진을 찍었다. 그러다 그만 형부에게 붙들려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놀라서 버둥거리는 날 보고 가족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저수지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던 기억 때문에 물을 무척 무서워한다. 그래서 해변에 가도 물속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강제로 물속으로 내던져졌으니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이 코미디가 따로 없었던 모양이다. 다행인 것은 한번 물속에 빠지고 나니 더 이상 물이 무섭지 않았다. 형부 덕분에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낸 셈이다.

다음날도 여러 가지 게임을 했다. 밀치기 게임부터 닭싸움, 풍선불기 등 즉석에서 만든 게임도 많았다. 상품이 바닥나자 상품 대신 현금으로 주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

마지막 날은 형부가 운전하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좀 무섭긴 했지만 바다가 잔잔해서 다행이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는 그 빛깔만으로도 신비로웠다.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가족들과 작별을 하는데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부모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이자 멋진 추억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바다가 내 안에서 출렁거리는 것 같다.

한국의 나폴리, 소매물도

독자 리포터
임동운(삼성래미안아파트)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광복절 전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생각지도 않게 여름휴가를 계획하게 됐다. 행선지를 어디로 정할까? 나는 직업 특성상 전국구를 누비며 제대로 된 휴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에 더욱 신중했다.

아내도 나도 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소매물도를 선택하게 되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여행 준비를 하고 행선지를 향해 달렸다.

여객선 터미널은 먼저 도착한 여행객들로 붐볐다. 승선표를 손에 쥔 10분 뒤 여객선에 승선하라는 방송이 들려왔다. 아내와 나는 간단한 소지품과 배낭만을 챙겨서 나란히 손을 잡고 방파제를 걸어 안전요원의 도움으로 배에 탔는데, 그토록 가슴이 설레고 들뜬 적이 언제였는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여객선이 출발을 알렸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도착한 곳은 소매물도 선착장이었다. 어촌 향내가 물씬 풍기는 사람들의 정겨운 사투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 소매물도 탐방을 위해 아내와 나는 트레킹을 시작했다. 섬 내부 곳곳에는 관광안내를 위한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트레킹을 하기에 최상의 조건인 곳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놓칠 수 없는 곳곳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작은 섬, 그곳은 바로 등대섬이었다. 조수간만의 현상으로 소매물도에서 등대섬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매마침 우리가 도착했을 땐 바닷물이 빠지고 자갈길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무사히 등대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땀을 쏟으며 도착한 등대섬에서 우리 부부는 소매물도를 완주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힐링! 바쁜 현실의 답답함에 사람들은 저마다 힐링을 노래하지만, 진정 그것이 무엇일까? 나 또한 그 물음에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오늘에서야 힐링이 무엇인지 그 일면을 찾은 듯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아내와 소매물도 등대섬에서 보낸 시간은 내 생애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그 행복과 낭만이 결코 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멋진 여행이었다.



독자 여러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가을은 우리의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축제의 계절입니다. SH독자 여러분에게 축제와 관련된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SH사랑방>에 문 두드려주세요. 겨울호 '행복을 짓다, 이야기를 짓다'의 주제는 '가을 축제 이야기'입니다. 주제에 맞는 원고를 보내주시면 보기 좋게 편집해 소개하겠습니다. 원고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대상 : SH공사 아파트 입주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누구나
- 주제 : 가을 축제 이야기
- 형식 : 자유(사진이나 그림이 있으면 게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분량 : A4용지 1매 이내 (글자 크기 10포인트 기준)
- 마감 : 2015년 12월 10일까지
- 혜택 : 상품권 증정
- 접수 : 전자우편(laima57@i-sh.co.kr) 또는 우편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주거복지팀)



성산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바리스타들이 연남동 마을 축제 현장을 찾았다. 자신들이 체득한 기술을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이들은 훗날 어엿한 매장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할 거란 희망을 가지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꿈, 희망을 연습하다

준비된 바리스타, 현장에서 배운다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드럽고 진한 커피향이 연남동 축제 현장을 감쌌다.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입니다. 맛보세요.”

천막 아래 테이블에 커피포트, 커피 그라인더, 원두 등을 진열해 놓고 영업을 개시한 네 명의 바리스타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유니폼까지 갖춰 입은 이들은 성산아파트 입주민이다.

지금은 바리스타라고 불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리스타 양성 과정의 교육생이었다. 마포성산 일자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바리스타 취·창업 교육’에 지원해 4개월 동안 성실히 배우고 익히다 보니 더치커피와 핸드 드립 커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술술 설명할 정도가 됐다. 지난 8월, 정식 바리스타가 된 이들이 오늘 행사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리스타 조정수 씨는 “연습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좋은 기술을 배워놓고 써먹지 않으니 금방 잊히더군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여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소 현장의 느낌에 익숙해져야 창업이나 취직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커피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예정입니다. 멋진 기술을 배워서 누군가에게 기부도 하니 보람차죠. 무엇보다 기술이 녹슬지 않게 연습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저희에게 큰 자산이에요.”



마포성산 일자리상담센터는?

마포성산 일자리상담센터는 2014년에 성산단지 성산종합복지관 내 1층에 문을 열었다. 개소한 이후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취업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에서 구직스킬 교육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체에서 구인구직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장 면접을 진행해 입주민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이상의 값진 경험

‘바리스타 취·창업 교육’은 철저히 현장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바리스타로 활동할 때 부딪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배웠기에 그만큼 더 현장에서 강하다고. 브랜드, 커피 맛, 원두 단가 등 커피의 기초부터 알려주는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본인들의 실력은 의심이 없다고 자부한다. 박복희 바리스타는 14명의 교육생이 커피농장을 방문해 커피콩을 체험하고, 매장을 찾아 카페 사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조언을 얻은 시간 모두가 귀한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저희에게 ‘바리스타 취·창업 교육’은 입주민끼리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가 된 덕분에 다들 꿈이 생겼지요. 각자가 꿈꾸는 카페를 열기 위해 다시 디저트 공부를 할 정도로 열성적입니다. 훗날 멋진 카페 안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자신을 위해 꾸준히 연습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카페를 운영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언젠가 기회를 잡기 위해 커피 머신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바리스타들.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커피 향이 술술 풍기는, 단맛 나는 앞날이 펼쳐지길 응원한다.

SH 와글와글



저와 가족들은 마장SH빌에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배장판을 교체했고 곧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로 앞두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을 제공하는 SH공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김복근(마장SH빌)

우리 동네에는 2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른 병원들이 문을 닫는 토요일 저녁에도 변함없이 환자를 돌보는 김○○ 의원님은 우리 동네 자랑입니다. - 남명희(대치아파트)

저는 서대문 센트레빌아파트의 통장으로서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늘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꿈을 안겨주는 SH에 감사를 표하며 사람 향기가 풍기는 아파트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이상한(서대문 센트레빌아파트)

아늑한 마장SH빌에 이사 온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이삿짐을 나르며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엇그제 같은데요. 이곳에서 많은 꿈을 키웠듯 앞으로 취업에 성공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꿈을 키웁니다. - 한숙진(마장SH빌)

신내2지구 테시앙아파트에서 '주민 어울림 척사대회'가 열렸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해 웃놀이, 제기차기 등을 하며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지요. 이번 행사가 삭막한 도시 생활에 웃음을 주고 주민들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 손재상(신내 테시앙아파트)

SH와글와글은 독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채워집니다. <SH사랑방>을 읽고 난 후거나 우리 단지 자랑 글을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알쏭달쏭



사진과 관련된 기사는 무엇일까요? <SH사랑방>을 읽은 독자라면 정답이 한눈에 보이겠죠? 맞는 내용끼리 선을 연결해주세요.



A



B



C

가

커피 한 잔에 담긴 꿈, 희망을 연습하다

나

방과 후 행복수업 Good afternoon!

다

입주민의 단짝, '오래오래 살고 싶은 집'을 만들다

정답을 체크해 SH공사 앞으로 보내주세요. 추천을 통해 뽑힌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전자우편(laima57@i-sh.co.kr) 또는 우편(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주거복지팀)

• 지난 호 퀴즈 당첨자

임정민, 전정연, 정주연, 유진, 허성태, 노명려, 지소봉, 윤미혜, 강덕심, 정혜선, 지귀택

SH 알림판



'행복한 서울, 2015 주거복지페스티벌'이 열립니다!

SH공사는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서울, 2015 주거복지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만끽하는 축제 한마당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이니만큼 일방향이 아닌,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면서 주거복지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_ 2015.12.04.(금)~12.05(토), 10시~17시
장소 _ SETEC (서울무역전시장 /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주최 _ SH공사, 조선일보

• 프로그램 구성

<p>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관(주거복지·문화) - 홍보관(SH공사·서울시) - 상담관(주거복지센터 및 일자리상담 부스) - 특별관(사회적기업 및 시민단체 등) - 주거복지컨퍼런스 	<p>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체험 : 이웃 체험하기, 무료건강검진 서비스 - 주거문화체험 : 마을지도·집 만들기 - 어울림 체험 : 사진촬영, 캐리커처, 가훈 써주기
<p>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나눔 : 다문화 음식 나눔 및 판매, 마을기업 커피숍 - 희망 나눔 : 가족사랑 바자회, 자치동아리 공예품 전시 	<p>즐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공연 - 센터별 경진대회 : 우수사업 소개 - 소무대 공연 : 비보이, 주민동아리 - 개막식·시상식·폐막식 : 축하공연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주민참여 공연 등 시상식